

세계도시동향

헤드라인뉴스	1	대기오염 측정정보 시각화해 서비스	암스테르담
문화·관광	3	'의료관광을 특화산업으로 육성' 프로젝트 착수	베를린
산업·경제	5	'지역상점가 활성화' 다각적 지원방안 만든다	아이치
사회·복지	7	자립 지원구조 구축 등 다양한 장애인 대책 수립	도쿄
	9	매달 50유로 지급 등 한부모가정 지원 강화	베를린
도시교통	11	'도심 화물교통 효율적 관리' 전략계획 시행	멜버른
	14	공영 전동스쿠터 '시티스쿠트' 운영 개시	파리
뉴스인사이드	17	언론보도 분석을 통한 세계 주요 도시 정책 이슈와 동향	뉴욕 외



대기오염 측정정보 시각화해 서비스

새집모양 TreeWiFi 설치...시민, 오염정도 알기 쉽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市 / 환경·안전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市는 시민들이 대기오염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대기오염 현황을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새집모양의 트리와이파이(TreeWiFi)를 설치
- 배경
 - 암스테르담市는 2015년 유럽 대기오염 평가에서 'D+' 등급을 받음.
 - 암스테르담市는 시의 여러 곳에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장치를 설치하였으나, 대기오염 상태가 시각화되어 있지 않아 시민들이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쉽게 이해하지 못함.
- TreeWiFi의 개요
 - TreeWiFi는 주변 지역의 대기오염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여러 색의 빛을 통해 대기오염 상태를 표시
 - 대기오염이 개선되면 그린 라이트가 켜지며 시민에게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
 - 이 장비의 가격은 500유로(63만 원)



나무에 설치된 TreeWiFi

- 유사 사례

- 런던시는 시민들에게 대기오염 정보를 문자로 제공하고 있으며,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에 설치된 전광판 등을 이용하여 시각화된 정보를 제공할 예정
 - 런던시는 대기오염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관심은 낮음.
- 파리시는 2014년 도심 지역의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시행을 통해 대기오염을 개선함.
 - 파리시는 시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차량공유시스템이 늘어난 반면, 런던시는 차량이용률이 증가함.

<http://www.citylab.com/navigator/2016/06/amsterdam-clean-air-free-wifi-birdhouse/485771/>

<http://www.citylab.com/cityfixer/2016/06/londons-plan-for-a-pollution-warning-system/488399/>

문화·관광

‘의료관광을 특화산업으로 육성’ 프로젝트 착수

독일 베를린市 / 문화·관광

- 독일 베를린市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의료관광 분야를 시의 특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
 - 베를린시는 베를린을 세계적인 의료관광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의료관광에 관한 연구조사를 한 결과 이 분야의 잠재성을 확인
 - 연구조사 내용
 - 시내 주요 의료기관과 외국환자를 위한 서비스 분야 조사
 - 외국환자 치료 상황과 외국시장 분석
 - 경쟁력 방안 등
 - 시는 이 프로젝트에 100만 유로(12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
 - 이 예산은 도시세(City Tax)로 징수한 수입을 재원으로 함.
 - 베를린시는 2014년부터 숙박요금의 5%를 도시세로 징수해 이를 재원으로 문화예술사업 및 관광사업을 지원

- 배경
 - 외국관광객들의 베를린 방문 목적은 문화, 예술, 스포츠, 관광 외에도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경우도 많음.
 - 2015년 베를린시에서 치료를 받은 외국인인 10,660명으로 2012년보다 15% 증가
 - 외국인들의 출신지는 주로 아랍권, 러시아, 중국 순
 - 이들은 병원비, 호텔, 쇼핑 등에 1억 5천만 유로(1,900억 원)를 사용

- 주요 내용
 - 베를린 의료관광사무소 설치
 - 웹사이트 개설
 - 의료서비스 관련 정보를 영어, 러시아어, 아랍어, 중국어, 독일어로 제공
 - 의료서비스 외 여행, 기사, 통역서비스 등도 소개

- 의료기관과 비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 의료관광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숙박, 쇼핑, 서비스, 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파트너들과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국제적 마케팅 강화
 - 의료박람회와 로드쇼를 통해 베를린시의 의료관광서비스를 홍보
 - 전문매체와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
- 외국환자들을 겨냥한 28개 주요 의료기관의 특성화

<https://www.berlin.de/sen/wirtschaft/presse/pressemitteilungen/2016/pressemitteilung.489379.php>

http://www.healthcapital.de/uploads/media/Potenzialstudie_Medizintourismus_Berlin-Brandenburg_2015.pdf

산업·경제

‘지역상점가 활성화’ 다각적 지원방안 만든다

일본 아이치현 / 산업·경제

- 일본 아이치현은 현내 상점가의 상업기능 강화와 상점가가 위치한 지역의 커뮤니티 기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이 포함된 ‘아이치 상점가 활성화 계획 2016~2020 (아이치商店街活性化プラン 2016~2020)’을 수립
 - 아이치현은 이 계획에서 4개의 주요 시책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
- 주요 시책 및 실행방안
 - 상점가의 상업기능 강화
 - 판매촉진, 홍보 등의 이벤트를 하는 상점가조합 지원
 - 저출산, 고령화, 방재·방법 등의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상점가조합 지원
 - 마르쉐(장터), 정기 시장 등의 이벤트 개최 지원
 - 홈페이지 개설, 상점가 지도 작성 등의 홍보활동 지원
 - 빈 점포나 빈 건물 등을 활용한 ‘집객 거점’ 조성
 - ‘지역 커뮤니티의 담당자’로서 상점가의 기능 강화
 - 빈 점포를 활용한 고령자용 커뮤니티 거점 및 육아지원 시설의 운영 지원
 - 택배 서비스와 이동판매 등을 지원
 - 중·고교생과 대학생의 취업체험 등을 지원
 - 방법순찰 활동 지원
 -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특산물 개발 지원
 - 자원재활용 활동 지원
 - 지역상점가를 지원하는 다양한 주체와의 연계 촉진
 - 상점가의 문제 해결을 위해 현(県)이나 현(県) 내 대학과 협력하여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상점가 지원
 - 지역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다양한 기관과의 매칭 지원

- 시정촌(市町村) 직원을 대상으로 상점가 활성화에 관한 워크숍 개최
- ‘아이치현 상업 및 마을만들기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형마트의 적정 입지를 추진
- 대형마트의 지역공헌 활동 촉진
 - 시읍면이 진행하는 지역만들기 협조
 - 지역 및 현(県) 내의 고용 촉진
 - 폐기물 억제와 재활용 대책 시행 등



아이치현의 주요 상점가에서 펼쳐지는 마르쉐(왼쪽), 이벤트(가운데), 세미나(오른쪽)의 모습
(출처: '아이치 상점가 활성화 계획 2016~2020')

- 상점가의 담당자 육성 및 외부인재 활용
 - 상가조직의 기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담당자 육성을 지원
 - 후계자 및 리더 양성
 - 다음 세대의 상점가 리더를 양성하는 ‘리더 학원’을 개최
 - 상점가조합의 청년 및 여성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
 - 빈 점포를 활용한 ‘챌린지 숍’의 운영 지원
 - 상점가의 사무국 기능 강화
 - 상점가에 실무적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매니저를 배치하여 이벤트 기획 및 운영, 사무처리의 조언, 빈 점포 대책 등의 업무를 지원
 - 상점가에 외부 전문가를 파견
 - 지역단체와 연계한 ‘지역 먹거리, 명소 조성’ 등 지역활성화 방안 지원

<http://www.pref.aichi.jp/soshiki/shogyo/shidou2703.html>

http://www.pref.aichi.jp/uploaded/life/116986_65737_misc.pdf

http://www.pref.aichi.jp/uploaded/life/116986_65738_misc.pdf

사회·복지

자립 지원구조 구축 등 다양한 장애인 대책 수립

일본 도쿄都 / 사회·복지

- 일본 도쿄都는 장애인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도쿄도 장애인 계획(東京都障害者計画)’을 2015년 4월 수립
 - 이 계획은 2015~2017년의 3개년 계획으로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구조 만들기
 - 지역의 서비스 제공 체제 구축
 - 그룹 홈의 조성 및 운영 지원
 - 장애인의 거주나 활동 등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토지임대료의 일부를 보조

 - 상담지원체제 등의 구축
 -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 복지서비스 사업자의 서비스와 경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

 - 시설 퇴소 후 지역생활의 적응을 지원
 - 입소시설 등에 지역자립촉진 코디네이터를 배치하고 도내·외 시설과 상호 간의 연계방안을 구축
 - 시설 입소자에게 지역의 지원사업자를 소개하고 본인이나 가족의 상담을 지원

- 사회적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 장애가 있는 학생과 그 보호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 보건소, 복지 및 노동 관련 기관과 연계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

 - 직업적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의 충실
 - 도립 특별지원학교 졸업생의 취업 촉진 관련 사업의 강화

- 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세미나를 실시
-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 실현
 - 일반취업을 위한 지원 강화
 - 장애인의 일반취업과 생활을 지원하는 취업지원기관 설치
 - 중소기업 등의 인사담당자에게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지식 등 제공
 - 복지시설의 업무지원 강화
 - 수주기회 증대 및 품삯 인상을 위해 생산설비 조성에 대한 보조 실시
 - 제품의 보급 및 판로 확대를 위해 도내에 판매소 개설
- 장애인을 위한 사회 실현
 -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한 복지도시 조성
 - 철도역 종합 배리어프리 추진사업
 - 승하차가 편리한 버스정비사업
 - 장애인의 차별 해소를 위해 마음의 배리어프리와 정보 배리어프리 등을 추진
 - 의족, 인공관절, 난치병, 임신 초기자 등 외모로 구분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한 ‘헬프 마크’를 보급
 - 긴급 연락처나 필요한 지원 내용 등을 기재한 ‘도움말 카드’ 등의 활용
 - 지역의 배리어프리 지도 작성
- 서비스를 담당할 인재의 양성 및 확보
 - 복지분야의 인재확보를 위한 홍보활동, 정보제공 사업, 강습·강좌 사업 등 다양한 구인·구직 활동을 지원

http://www.fukushihoken.metro.tokyo.jp/shougai/shougai_shisaku/shougai_keikaku/dai4ki.files/zentai.pdf

http://www.fukushihoken.metro.tokyo.jp/shougai/shougai_shisaku/shougai_keikaku/dai4ki.html

매달 50유로 지급 등 한부모가정 지원 강화

독일 베를린市 / 사회·복지

- 독일 베를린市는 저소득계층 중에서도 한부모가정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싱글맘과 싱글대디의 생활개선 계획을 수립
 - 시는 한부모가정의 문제를 재정, 사회 인프라, 시간의 3가지 요소로 구분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을 수립

- 배경
 - 독일 전체 가정의 1/5, 베를린 가정의 1/3이 한부모가정임.
 - 한부모가정의 90%가 싱글맘이며 이 중 40%가 높은 빈곤도를 나타냄.
 - 한부모가정의 50%는 자녀양육비를 받지 못함.

- 현행 한부모가정의 지원
 -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세금혜택
 - 자녀양육보조금 지급
 - 베를린 가족센터와 한부모가정 네트워크를 통한 상담 및 지원
 - 전일제 보육시스템과 전일제학교를 통한 자녀돌봄서비스

- 개선된 한부모가정의 지원 계획
 - 세금감면 혜택의 한계 인정
 - 한부모가정은 저소득층이 대부분이어서 세금감면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함.
 - 따라서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매달 50유로(64,000원)를 지급하고 자녀 1인당 6유로(7,700원)를 추가로 지급

 - 자녀부양지원법의 변경
 - 저소득층의 자녀부양지원금 및 자녀양육수당의 산정방식을 한부모가정 상황에 맞춰 조정 및 변경
 - 기존: 자녀가 12세 이하인 가정에 최장 72개월 지급
 - 개정: 한부모가정은 자녀의 연령 제한을 14세로 늘리고 지급기한도 연장

- 싱글맘과 싱글대디를 위한 직업·생활서비스 기반 구축
 - 한부모들의 취업 및 휴직 후 재취업 지원
 - 맞춤형 직장으로 직장생활을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게 서비스 인프라 구축
 - 전일제보육원과 전일제학교 외에 부모의 특별 근무시간에도 맞출 수 있는 유연한 어린이 보육시스템을 운영

- 싱글맘과 싱글대디가 자녀들과 함께 하는 가족단체 여행을 지원

<https://www.berlin.de/sen/aif/ueber-uns/presse/2016/pressemitteilung.488994.php>

<https://www.berlin.de/rbmskzl/aktuelles/pressemitteilungen/2016/pressemitteilung.474334.php>

도시교통

‘도심 화물교통 효율적 관리’ 전략계획 시행

호주 멜버른市 / 도시교통

- 호주 멜버른市는 도심의 화물교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략계획인 ‘최종 목적지 화물 계획(Last Kilometre Freight Plan)’을 2016년 6월 수립
 - 주요 내용
 - 현행 도심의 화물배달 방식과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 현 전략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활용 방안과 시의 역할
 - 혁신적인 대안들에 대한 시범사업 계획 등
 - 이 계획은 도시계획, 대중교통, 화물정책, 테크놀로지, 규제 영역으로 구분하여 실행방안을 제시
- 배경
 - 멜버른 도심의 급속한 성장
 - 2012년 통계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고용은 25%, 주거 인구는 140% 증가
 - 도심의 인구와 고용 증가로 식당, 상가, 사무실 등으로 배송되는 화물량의 증가
 - 출근시간대 도심으로 진입하는 화물 차량의 높은 비중
 - 같은 시간대 통근용 일반차량의 도심 진입은 46,000대인 데 비해 화물 차량은 10,300대에 달함.
- 도시계획 영역
 - 요점: 향후 도시구조와 기반시설을 설계할 때 화물의 진입, 적재, 배달 등 관련 규정을 적용
 - 실행방안
 - 화물교통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시행
 - 교통 및 환경 영향을 최소화한 대안 화물교통의 발굴 및 지원
 - 사용하지 않거나 활용도가 낮은 도심 공간을 발굴하여 화물 용도로 사용

- 대중교통 영역
 - 요점
 - 대중교통 노선의 변경 및 신규 노선 개발
 - 화물적재 구간이 대중교통의 흐름을 방지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대중교통과 화물 공급망 간의 연계성을 강화
 - 실행방안
 - 화물교통계획 실행 때 멜버른지하철공사와 협력사업 추진
 - 대중교통노선 신설 때 효율적인 화물배달 및 수령 체계에 대한 고려

- 화물정책 영역
 - 요점: 환경과 교통에 영향이 적은 혁신적인 화물운송수단을 정책적으로 장려 및 지원
 - 실행방안
 - 화물운반용 자전거를 도심의 화물교통수단으로 활용
 - 화물운반용 자전거의 시범사업 시행
 - 화물운반용 자전거는 보행자 안전, 환경 및 유연성 등에서 차량의 대체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음.



멜버른시가 장려할 예정인 화물운반용 자전거

- 출근시간대를 피한 화물운송시스템의 시범사업 실시
- 화물 공급망과 수령인들의 불편함 및 시간 외 근무로 발생하는 인건비 등을 고려한 비용편익 분석 수행

- 테크놀로지 영역
 - 요점: 배달의 신속성 향상, 사고 및 소음 방지, 도심공간 절약 등을 위해 첨단 테크놀로지와 통신기술을 화물교통 개선에 적극 도입
 - 실행방안
 - 화물적재 및 하역장소를 지정하지 않고 예약시스템으로 운영
 - 무인차량, 드론, 로봇 등을 대안 화물운송수단으로 활용할 방안을 적극 고려

- 규제 영역
 - 요점: 시의 규제 권한을 적극 활용하여 거리 설계 및 화물교통 통제를 통해 화물교통을 개선
 - 실행방안
 - 신축건물 설계 때 화물을 하역하고 수령하는 공간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규제
 - 현재 대형차량의 도심 진입 제한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화물 차량 접근 허가시스템'을 일반 화물 차량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 기타사항
 - 시는 이 계획을 통해 출근시간대 화물적재 및 하역 구역 사용을 현재보다 50% 낮출 예정
 - 효율적인 화물교통은 궁극적으로 도시의 생산성과 경제, 그리고 환경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http://www.cargonecouriers.com.au/>

<http://www.melbourne.vic.gov.au/news-and-media/Pages/New-city-centre-freight-delivery-plan.aspx>

http://participate.melbourne.vic.gov.au/application/files/9214/4478/7740/Draft_Last_Kilometre_Freight_Plan.pdf

공영 전동스쿠터 ‘시티스쿠트’ 운영 개시

프랑스 파리市 / 도시교통

- 프랑스 파리市는 2016년 7월부터 전동스쿠터로 운영되는 ‘시티스쿠트(Cityscoot)’ 시스템을 운영
 - 파리市는 2015년부터 전동스쿠터를 시범운영
 -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웹사이트와 모바일로 예약 및 이용을 하는 시티스쿠트 시스템의 운영을 개시
 - 시티스쿠트는 열쇠, 이용카드, 임대발급기 등이 없어도 이용이 가능

- 이용 및 반납 절차
 - 이용 가능한 스쿠터의 위치 파악
 - 이용할 스쿠터의 선택 및 예약
 - 예약코드를 직접 스쿠터에 입력 후 이용
 - 반납은 ‘시티스쿠트 존(Zone Cityscoot)’ 내에 있는 이륜차 주차장에 스쿠터를 주차하는 것으로 종료

- 이용비용
 - 기본 이용시간은 없으며 선불제와 후불제 방식으로 비용을 지급
 - 선불제
 - 시티스쿠트 웹사이트의 본인 계정에서 이용비용을 납부
 - 선불금액은 충전할 때마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선불 금액이 소진 되면 후불제로 자동 변경됨.
 - 후불제
 - 시티스쿠트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이용이 가능
 - 1분당 0.28유로(360원)



파리시역 중 하늘색으로 표시된 '시티스쿠트 존(Zone Cityscoot)' 지도(출처: @Cityscoot)

- 이용장소 및 시간
 - 스쿠터의 대여와 반납은 '시티스쿠트 존' <그림 참조>에서만 가능하나 대여시간 동안 운행은 '시티스쿠트 존'을 벗어나도 상관없음.
 - '시티스쿠트 존'은 파리시역의 1/3 정도의 규모
 - 이용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며, 지정 시간 외에는 예약불가
 - 이는 이용자에게 잘 정비된 스쿠터를 제공하려는 조치임.
 - 사업이 안정되면 이용시간도 점차 늘릴 예정
- 기타사항
 - 파리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티스쿠트 시스템의 운영으로 시민들의 도심 내 이동이 편리해질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과 도시 소음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
 - 현재는 사업의 1단계로 '시티스쿠트 존'에 전동스쿠터 150대를 배치하고 수개월 내에 1,000대로 늘릴 예정

<http://www.paris.fr/actualites/cityscoot-le-1er-service-de-location-de-scooters-electriques-en-libre-access-c-est-parti-3822>

언론보도 분석을 통한 세계 주요 도시 정책 이슈와 동향

세계 주요 도시 정책 이슈와 동향

- 미국 뉴욕市
 - 영국 런던市
 - 싱가포르 싱가포르市
 - 중국 상하이市
-

세계 주요 도시 정책 이슈와 동향

뉴욕

- 공공주택 거주자 안전 위해 가로 조명 설치 2016.06.15
- 뉴욕시는 안전환경 개선을 위해 가로 조명을 설치함. 2014년 공공주택의 물리적 환경개선과 CCTV 설치 등으로 범죄율이 감소하면서 뉴욕시는 지속적인 범죄율 감소와 공공주택 거주자의 안전 개선을 위하여 가로 조명을 설치함.

<http://www1.nyc.gov/office-of-the-mayor/news/537-16/delivering-public-housing-mayor-de-blasio-completion-305-new-safety-lights-and#/0>

- ‘시민·관광객에 교통편의 제공’ 페리시스템 개선 2016.06.16
- 뉴욕시는 뉴욕시민과 관광객의 교통편의를 위해 뉴욕시 페리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함. 선박의 규모와 선박 내 공공서비스 등을 개선하고, 5개 자치구에 21개 선착장을 새로 설치하여 19개의 선박을 운영하기로 함.

<http://www1.nyc.gov/office-of-the-mayor/news/540-16/mayor-de-blasio-releases-new-renderings-state-of-the-art-boats-citywide-ferry-service>

런던

- 사회통합 개선을 시정 핵심기조로 추진 2016.06.01
- 사디크 칸 런던시장은 런던시의 발전을 위해 사회통합 개선을 시정 핵심기조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종교, 인종, 경제적 배경, 연령 간의 관계 개선과 사회구조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 등을 약속함.

<https://www.london.gov.uk/press-releases/mayoral/mayor-to-make-social-integration-a-priority>

- 그린벨트 보존하려고 개발사업 승인 철회 2016.06.22
- 런던시는 그린벨트 보존을 위해 개발계획이 승인된 개발사업을 철회함. 그린벨트 내 개발 중이었던 축구 경기장과 아파트 건설 등의 개발사업 세부 평가를 시행하여 개발계획 승인을 철회함.

<https://www.london.gov.uk/press-releases/mayoral/sadiq-khan-pledges-support-for-green-belt>

싱 가 포 르

- 계약직 근로자에게 휴가 혜택 제공 2016.06.21
- 싱가포르시는 계약직 근로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계약직 근로자에게 휴가 혜택을 제공하기로 함. 3개월 재직한 근로자에게 4개월부터 휴가 2일, 병가 5일, 육아 휴직 2일을 제공하기로 함.

<https://www.gov.sg/news/content/today-online---new-guidelines-on-leave-for-term-contract-workers>

- 공공주차장 주차요금 인상 2016.06.23
- 싱가포르시는 사설주차장과 공공주차장의 주차요금 차이를 줄이고 도시 내 차량 수요를 관리하기 위해 공공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인상하기로 함. 또한 정부임대아파트 내 주차장을 사용하는 비거주자와 소유 자동차가 1대 이상인 거주자 가정의 주차요금 인상을 검토하기로 함.

<https://www.gov.sg/news/content/the-straits-times---public-parking-rates-set-to-rise-after-review>

상 하 이

- 환경오염 벌금 10배 인상 2016.06.24
- 상하이시는 환경보호를 위해 환경보전법 규정을 더 강화함. 건설현장의 건축재료(콘크리트, 돌, 흙 등)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완공 후 한 달 이내에 건축자재물을 정리하도록 함. 또한 환경오염 벌금을 기존 10만 위안(약 1,700만 원)에서 10배 인상한 100만 위안(약 1억 7,000만 원)으로 강화하고, 규정을 위반한 건설현장은 즉시 폐쇄하기로 함.

<http://www.shanghai.gov.cn/shanghai/node27118/node27818/u22ai83177.html>

- 황푸강변에 상하이 국제물류센터 만든다 2016.06.30
- 상하이시는 세계 무역·물류 동향에 맞추어 황푸강변에 물류와 항공의 중심이 되는 상하이 국제물류센터 조성 계획을 발표함. 양쯔강 경제벨트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생태계 복원과 역사 유적지 보존을 통해 시민에게 여가 공간을 제공하도록 계획함.

<http://www.shanghai.gov.cn/shanghai/node27118/node27818/u22ai83229.html>

「세계 주요 도시 정책이슈와 동향」은 뉴욕, 런던, 싱가포르, 상하이 등 세계 주요 대도시 보도자료에 발표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소개합니다. 서울시 정책 개발 및 이슈 발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정책의 선도성을 지니거나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췌하였습니다.

편집담당자 : 기획조정본부 심아름 연구원